

Press Release

Kukje Gallery

Damián Ortega_ Reading Landscapes

다미안 오르테가 (멕시코 생, 1967-)

2014. 4. 10 - 5. 11

국제갤러리 3관 (K3)

기자간담회: 2014. 4.10 목요일 (오전 10시30분), 국제갤러리 3관, 작가참석예정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동시대 남미 현대미술의 주목 받는 멕시코 출신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의 개인전 <Reading Landscapes>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오르테가의 작업은 재료의 독특한 용법과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축하는 힘들에 대한 탐구를 다룬 조각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각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업들에는 멀티미디어 설치,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들 역

시 포함된다. 그의 작업은 일상의 사물들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예술적 특성과 잠재성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들의 사회적 내포를 담아내는 유머, 시, 그리고 탁월한 공학기술들의 혼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도전을 제공한다.

오르테가는 물질성과 형상, 기능과 쓸모 없음 등의 주제들 그리고 '과정'의 개념과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힘들을 다룬다. 작가는 종종 말 상업적 공산품들을 해체하여 그것의 구성요소들을 드러내거나 혹은 단순한 형태들을 새롭고도 복잡한 방법들로 구축하곤 한다. 이 해체된 사물들로 오르테가는 전체의 기계들을 따로 떼어내어 각각의 조각을 허공에 매달음으로써 일상적으로 보는 형태 뒤에 숨겨진 그것들의 개별적인 비밀을 가시화한다. 라틴아메리카 작가들 예를 들어 헤수스 라파엘 소토와 헤호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다미안 오르테가의 시각적으로 고혹적인 '매달린 조각'들은 흡사 엔지니어의 설계 드로잉의 조각적 버전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캐리커처에서 발견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특성들을 함축한다.

그의 다채롭고도 역동적인 작품세계를 통해 오르테가는 재료의 본질과 간결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모든 매체들을 통해 가장 강력한 작업들을 창조해내고 있다.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다미안 오르테가의 작업은 종종 균형을 잡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균형과 조정을 도구이자 강력한 개념적 제스처로 사용함으로써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사회 및 환경을 이루는 섬세하고도 불안정한 힘들을 드러낸다. 사물들을 해체하려는 이러한 충동은 오르테가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중 하나인 <Cosmic Thing>(우측이미지)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가는 자동차(폭스바겐 비틀)의 차체를 전부 해체하여 마치 분해도와 같이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이 설치작



<Cosmic Thing> 2002, Photo: John Kennard, 보도자료 참고용

품은 작품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적인 새로운 형태를 띠지만 결코 오르테가 작업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그것의 일상과 세속적인 본질을 잃지 않는다. <Cosmic Thing>은 이번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신작들을 위한 주요한 근간이 되는 작품이다. 실제로 오르테가는 이번 <Reading Landscapes> 전을 위해 앞의 폭파된 형태 속에 내재된 우주적 관념들을 드러내는 신작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 (지구의 중심으로의 여행: 관통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 작품에서 천장에 매달린 바윗돌과 광물들은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빅뱅의 정지상태처럼 보인다. 이 어셈블리지 작품은 흡사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땅에서 파낸 파편들로 잃어버린 시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을 떠올리는 고고학적 법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잊혀진 시간이라는 은유는 <Reading Landscapes>전에 전시된 지질학자들이 '깊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과 직접 연관된 일련의 조각들에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다. 매우 정교한 연구를 통해 '깊은 시간'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사는 행성의 놀라운 연대기, 즉 그 범위에 있어 압도적인 시간적 단위를 묘사하고 있다. 오르테가에게 있어 이러한 은유는 퇴적층들과 같은 지질학의 기본적 원칙들이 어떻게 조각에 대한 형식적 접근방식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할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K3관에 설치된 작가의 조각들은 재료에 있어서나 시각적으로나 일상의 풍경들을 이루고 있는 기념비적인 성격, 그리고 파괴되기 쉬운 복잡성 등의 이슈들과 유희한다.

이 중층화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오르테가의 설치로 나타나는데, K3관 가운데에 설치되는 작품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은 전시의 개념적 핵심을 잘 알려주는 '세계의 축'으로서 기능한다. 그와 연관된 조각들은 이 주요 지점의 주변에 배치된다. 작품들 중 <Breevesquema del Tiempo>(세계의 구조)라고 명명된 작품과, *Geoda 3: Cebolla*는 동일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어 일종의 변성진화를 떠올린다. 이 작품들은 지구 지질학과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과학을 유추하게 하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행성을 높은 압력 하에서 층층이 쌓인 레이어들을 통해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고밀도의 물질들이다.

이러한 압력은 *Geoda* 연작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그것의 형태와 성형과정들은 독특한 색채와 질감을 지닌 풍부한 광물질들이 바위, 산, 그리고 지구로부터 얻어지는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작

품들은 자연적 힘들, 그리고 형이상학적 의미에 대한 고대의 연구 간의 관계를 강하게 끌어들이는다. 이 신비한 대상들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문화를 차지해 온 기원들에 대한 우주적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한다. 이 작품에서 오르테가는 진부한 바위들의 감추어진 내부가 얼마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풍경을 '읽도록' 하며, 그 풍경을 형성시킨 힘들을 진정성있게 바라보도록 촉구한다.

복합적이고 개념적 생각들을 친숙한 재료들을 통해 재구성해내는 오르테가의 능력은 그의 특징들 중 하나이다.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재료들 중 실로 대단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있다.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크리트는 진보의 동의어처럼 이해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그의 근래의 조각 작품 *Extracción* 에서 오르테가는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건축과 자연 둘 다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도록 활용하고 있다.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고도의 기술로 맞이어 쌓은 채색 시멘트 형태들을 이용함으로써 그것들이 자연적인 물질성을 내뿜도록 한다. 이러한 조합은 해체와 균형이라는 작가의 두 가지 기본 전략들을 미묘하게 뒤섞음과 동시에, 문화적이거나 환경론적 이유에서 우리가 우리의 토대가 지닌 취약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블록 쌓기 놀이를 통해 유희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신비스럽게 숨겨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땅에 묻힌, 시를 번역하고자 하는 열망은 *Falla*와 *Todaslasfallas* 에서 보이는 구조적 힘들에 대한 오르테가의 야심찬 묘사에서처럼 더욱 심오하게 드러난다. 이 역동적이고 다양한 조각들에서 작가는 행성을 형성하고 있는 감춰진 역학을, 지형학적 창조를 위해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운동치들을 상징하는 벽돌, 주물, 콘크리트, 나무 등과 같은 흔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재창출해내고 있다. 지질학적 현상에 대한 거칠고도 아름다운 오르테가의 묘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모든 층위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유사한 사회적 힘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미안 오르테가의 작업은 단적인 해석을 거부한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무겁고 또 가벼우며, 물질성과 중력의 원초적 힘들과 강렬하게 투쟁하며 동시에 문화적 상징성과 동시대 사회의 불안정성에 개입한다. <*Reading Landscapes*> 전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 그것의 환경에 개입하기를 요구하는 야심차고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시이다. 국제갤러리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

©Damián Ortega, 2014.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다미안 오르테가는 1967년 멕시코 생으로 현재 멕시코 시티에서 거주 및 작업 중이다. 그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아버지는 대학교 내 극장의 배우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비교적 실험적이고 열린 교육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 그는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신문사에서 정치만화를 그리는 만화작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당시 오르테가는 남미출신의 현대미술가 가브리엘 오로츠코(Gabriel Orozco)와 프란시스 앨리스(Francis Alys)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때 오로츠코의 작업실에서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주요한 비영리 전시 공간인 '아르테 44'를 통해 본격적인 작업활동을 시작하였고 동시대의 새로운 멕시코 현대미술의 세대를 여는 주요한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대표 개인전으로는 2013년 런던의 플루이드 미술관의 <다미안 오르테가: The Blast and Other Embers>, 2011년 키아브에 소재한 핀척 아트센터의 <Tool Bit>, 2010년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서 <New Commission for The Curve>,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관의 <The Beetle Trilogy and Other Works>,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과 레드캣 갤러리의 <다미안 오르테가: The Uncertainty Principal, Untitled Project Series> 등이 있으며, 그룹 전시로는 지난해 열린 제 55회 베니스비엔날레,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MoMA PS1, 상파울로 비엔날레, 상하이의 민생미술관에서의 전시 등이 있다. 주요 소장처 및 수상경력으로는 베를린의 함부르거 반호프 미술관의 주목 받는 젊은 미술인 선정 및 휴고 보스 미술상 수상 등이 있다.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이미지 편집이 요구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mián Ortega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ías

2014

Polyurethane foam, bamboo,

paper, cardboard, sisal,

styrofoam

110 x 110 x 110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Damián Ortega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Damián Ortega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ías

2014

Polyurethane foam, bamboo,

paper, cardboard, sisal,

styrofoam

110 x 110 x 110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Damián Ortega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Damián Ortega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ías

2014

Polyurethane foam, bamboo,

paper, cardboard, sisal,

styrofoam

110 x 110 x 110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Damián Ortega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Damián Ortega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ías

2014

Polyurethane foam, bamboo,

paper, cardboard, sisal,

styrofoam

110 x 110 x 110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Damián Ortega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Damián Ortega*Geoda 2*

2014

Paper, paint and glue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Damián Ortega

**KUKJE GALLERY**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